

OVER THE LIMIT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라는 삼성의 경영 이념과 질(質) 위주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출발한 1977년 이래,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온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인재 양성, 기술력 향상, 프로세스 혁신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해왔으며,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 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건설 회사로 성장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시공 기술력 확보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지난 2005년 7월, 4만6623개의 국내 건설 회사를 대상으로 공사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 판단해 평가하는 시공 능력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9월에는 「제11회 원자력 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우선으로 올린 원전 5,6호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 단체상' 을 수상하였다.

본상은 원자력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연구/규제 분야에 대해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 단체 등 30여개 기관 중에서 1개 단체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정부 포상으로,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이 원전 시공사로서 당당히 수상함으로써 기술력의 총아라고 불리는 원전 시공을 완벽하게 수행한 기술력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제고시켜 주었다.

이는 시공 PROCESS 개선을 통하여 안전성을 극대화시키고, 체계화된 품질 보증/관리 절차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등 엄격한 품질 관리 활동으로 최상의 시공 품질을 확보한 결과이다.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있어서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력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원자력 안전성 보장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 때에, 원자력 안전성 확보 노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도록 하는 데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이 크게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층당 건설 공기 3일을 시현하고 있고, 정밀도와 공기 단축이 생명인 하이테크 공장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Fast Track 공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07년 시공 기술 세계 1위 수준 진입을 위해 필요한 'Landmark 시공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적 수준의 시공 기술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멀지 않아 선진사들이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건설 회사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범으로 완전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기술력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언제나 변함없는 든든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젊고 유능한 기술자들이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전문가로서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자들에게 그 기회를 부여해 오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하고 철저한 실천을 통하여 회사의 기술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초고층 빌딩, 하이테크 공장 시설, 도로 및 교량, 항만, 발전 플랜트, 주택 등 건설 기술력을 상징하는 6개의 핵심 상품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에게 최상의 부가가치를 실현해 주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술, 품질, 안전, 환경 등 건설



2005년 9월 5일, 제11회 원자력 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울진 원전 5,6호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적으로 삼성물산(주) 이상대 사장이 오명 과기부총리로부터 대통령 표창 단체상을 수상하고 있다.

산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 경영을 통해 고객에게는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건설 활동으로 인한 잠재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보건 안전 시스템 도입, 사내 품질 표준 및 공사 관리 프로세스의 정립, 사내 기술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기술 지원 조직의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삼성만의 고유한 노하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해외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 수주의 전제하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동 등 성장 시장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업 조직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우수 인력을 확보하

며, 선진사와 현지 업체,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 유지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고객 니즈 등 시장 변화를 앞서가는 마케팅과 디자인, 상품 개발, 품질, 서비스 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갈 것이다.

6 Sigma를 통한 경영 혁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6 Sigma는 그 동안 MBB(Master Black Belt), BB(Black Belt) 등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보유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였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워크아웃 방식의 회의 확산, 용어의 통일을 통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효율 제고, 데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이 시공중인 신월성 원자력 1,2호기 주설비공사 현장의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인근마을(경주 양북면 구길리)을 청소하고 있다.

이터와 지표를 통한 문제 분석과 성과 도출 노력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

이제 도입 4년차를 맞이하여 경영 성과와 직결된 혁신 활동으로 6 Sigma와 경영을 완전히 일체화시켜 경영 성과를 더욱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다.

사회와 함께 하며 성장하는 기업 문화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그 동안 정도 경영, 상생 경영, 나눔의 경영 등의 실천으로 업계 모범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삼성그룹의 신념이자 가치 기준인 5대 핵심 가치와 핵심 가치의 구현을 위한 경영 활동의 지침이자 임직원 행동 규범인 5대 경영원칙을 철저히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삼성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키고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임직원의 자원 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칭그랜트(Matching-Grant)' 제도를 시행하며, '1인 1개 봉사팀 가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쉽게 자원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 활동 관련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해비타트 운동 지원에서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원 봉사까지, 현실적이고 폭넓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는 이러한 나눔 경영은 바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의 존재 가치가 되고 있다.

WHAT'S THE LIMIT?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이제 '국내 업계 리딩 컴퍼니'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새로운 꿈의 출발점에서 있다.

창의와 도전, 젊음의 역동성과 패기로 새롭게 옷을 갈아 입고 열심히 힘을 합쳐서 나날이 더욱 새로워지는 회사, 꿈이 살아서 움직이는 회사를 만들어, 넓은 세계 무대에서 가치를 높여가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건설, 사람을 생각하는 창조자가 되어, 인간 존중, 고객 중심의 휴머니즘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세계의 하늘을 높이며, 세계의 도시를 넓혀온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스스로의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해, 불가능으로 보이는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제 더 큰 발걸음으로 그 도전과 열정의 대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현재의 위상을 넘어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인류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미래 도시를 향한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